

**어머니주일  
설교**

## 집을 세우시는 주

<시편127편>



조은주 목사 (우베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결은 질서입니다. 에덴동산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를 핑계하며 자기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그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질서가 흐트러지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가정이 사랑, 배려 그리고 용서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중 제4, 제5계명은 오로지 긍정문과 함께 축복의 약속으로 채워진 문장입니다. 다른 8개의 계명은 「-지 말라」 라는 부정문입니다. 이 축복의 두 계명이 십계명 가장 가운데 위치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에 그다지 큰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이해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제5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가정, 가족]은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모 공경을 통한 [자기구복]과 함께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뒤에 이어지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질서 인식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시편127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3절 [보라 자식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127편 1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견고히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그 가문을 이룰 후사가 없으면 그 집의 의미는 없습니다. 화살은 화살만으로는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장수의 손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화살로 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사의 손에 화살이 없으면 그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화살이 쥐어진다면 그 평범했던 사람이 용사로서의 변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이러한 가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정할 수 없듯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 위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시편128편에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 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 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 :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國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제57회총회

# 제3회 상임위원회 개최

## 정기총회 일정, 장소, 주제 등을 확정

제57회 총회기 제3회 상임위원회가 2025년4월22일(화)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어, 상임위원 25명 중 23명, 특별위원장 2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되었다. 심의 및 의결된 주요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전 총회신학교와 西新井교회와의 <공동위원회> 설치의 건을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2) 총회 헌법/규칙집 발간의 건은 변경사항 등을 보완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고, 헌법규칙집은 헌법 개정 후 발간하기로 하다.
- (3) 신도위원회 준위원 보충의 건(최일승장로)을 승인.
- (4) 新居浜그레이크교회 인접 토지 교환의 건을 승인.
- (5) 제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20주년> (2028년) 준비위원회 조직의 건을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6) 총회 규칙(헌법) 변경의 건(목사/장로 시무 연장)은 계속 심의 하고, 각 지방회 의견 등을 청취하여 차기 상임위원회에 초안을 작성하여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7) 제58회 정기총회를 “주수를 위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마태9 : 37~38)라는 주제로, 2025년 10월12일(주일) 18:00~14일(화)12:00, 福岡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인 및 승인하다.
- (8)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화) 10 : 30, KCC(大阪)에서 개최,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산/결산을 위한 임시상임위원회를 10월 7일(화) 18 : 30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밑의 사진은 개최 때의 출석 위원)



서남지방회

# 최일승장로 장립식 거행

## 하카타교회에서 첫 장로로서 장립



2024년 9월 15일(주) 오후 하카타교회에서 최일승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윤선박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성효목사의 기도에 이어, 이상훈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로마서12 :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장로 장립식에서는 신치선 서남지방회장의 사식으로 서약, 안수기도로 진행됐다. 고문국장로, 김정명 장로의 권면과 박재덕장로, 허백기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최일승장로의 답사가 있었고, 최정강 명예목사의 축도로 장립식을 마쳤다. 약 90여 명이 모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하카타교회의 첫 장로로 장립된 최일승장로는 1967년, 최정강목사의 장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1968년 후쿠오카교회에서 김덕성목사에게 유아세례를 받고, 1986년 구마모토교회에서 입교, 2004년부터 하카타전도소의 집사로 섬기다가 이번에 하카타교회의 시무 장로로 섬기게 되었다.

전부여성회

# 제65회 정기대회 개최

## 기후교회에서 대의원 24명중 23명 출석

지난 4월8일(화) 기후교회에서 중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5회 정기대회가 4교회 대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고성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골로새서4:11~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채은숙 목사(오가키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고성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김은숙 회장의 개회선언 후에 내빈(고성목사, 안지애사모, 이시바시 마리에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채은숙목사, 이진용목사, 나현자사모)을 소개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기후교회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다.

점심 후에 회의를 시작하여 전 회의록, 위원회 보고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각 부 보고, 각 교회 보고, 회계 보고가 있었다. 다음 정기대회 장소는 제 65회 제1회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폐회예배는 이시바시 마리에 전국여성회 총무가 <헌신> (사도행정2:44~4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채은숙목사의 축도 후에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정기대회를 마쳤다.

오랜만에 기후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당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첫 참가 대의원이 있는 게 기뻐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고:카네마츠 미네오사기)



서부여성회

# 제38회 정기대회 개최

## 5교회에서 대의원 15명이 출석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제38회 정기대회가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1시부터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오후에는 5개 교회로부터 대의원 15명, 배석자 7명이 출석하였다.

개회예배는 윤풍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승철목사(고베동부교회)로부터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7:18-29)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있었으며, 이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다.

양윤자 회장의 개회 인사 후 개회 선언이 있었고, 참석자와 내빈의 소개에 이어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전국여성회 총무)의 축사가 있었으며, 양영우 목사(KCCJ 총회장)의 축사는 양윤자 회장이 대독한 후, 고베교회 여성들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후, 회무에 들어갔다.

총괄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차년도 예산안이 승인되었고, 2025년도 활동방침안이 확인되었다.

폐회예배는 양윤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세일목사(고베교회)로부터 ‘모범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 : 12~17)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고, 축도로 폐회하였다.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서부여성회가 되기를 바란다.(보고 : 최미혜자)



동경교회

# 청년부가 노토반도지진 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동경교회 청년부는 노토반도지진 피해지역을 위한 기도를 이어 가는 중에, 실제로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중에 초회 사회위원회를 통하여 자원봉사 모집정보를 얻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20일(춘분/공휴일)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준비는 2월초부터 시작되었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하여 교회의 승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비용과 이동시간을 알아봤다. 또한 직장인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3월19일(수요일) 밤(퇴근 후)에 출발해서 노토반도 현지까지 가는 일정을 세울수 밖에 없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었지만, 6명의 청년이 참가 신청을 했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되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된 곳은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였다. 나나오 시에는 민간재해지원봉사센터 “오랏차 나나오”가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오랏차 나나오”에 연락하여 자원봉사 등록을 했고, 보험 가입방법과 자세한 활동의 흐름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전에 “재해 자원봉사 차량” 등록을 하고 통행증명서를 발행하면 왕복 고속도로요금에 면제가 되는 제도도 알게 되었다.

출발의 날, 각자 일을 마치고 모인 청년들과 성경말씀묵상(빌 2:4-5)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



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20일 활동날의 이른 아침, 장거리 이동의 피로가 있었지만, 자원봉사 접수를 하고, 일본전국에서 모인 다른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고, 각 활동현장(의뢰하신 이재민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3월 시점에서의 주된 활동내용은 공비해체(公費解体)가 결정된 집의 청소(쓰레기 분별)작업이었다. 의뢰인들의 각 집마다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정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나나오시의 쓰레기 분별방법의 안내를 듣고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약 6시간의 작업을 하면서, 의뢰자(이재민) 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내 집’과 ‘내 고향’에 대한 마음, 자원봉사에 참여한 저희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말들은, 이번 봉사 가운데 무엇보다 가슴 깊이 남게 되었고, 도쿄로 돌아온 후에도 청년들과 계속해서 돌아보며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6시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준비의 과정과 돌아온 후의 나눔의 시간까지 포함하여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가한 청년 모두가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앞으로도 노토반도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보고 : 김성태)



(2월 11·12일 후쿠오카교회에서 열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성경세미나 주제강연 요약입니다.)

## 전국교회여성연합회 「깨트리는 여성, 깨어나는 교회」 성서세미나

●여성의 경험에서 성서 다시 읽기 “마르다와 마리아, 초월과 연대” 누가10:38-42

강사 최소영 목사



### 1. 여성들이 마주한 벽, 넘어선 벽

교회 여성들은 늘 교회공동체를 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전도부인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성들은 늘 벽을 넘어선 이들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이름을 주지 않던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갖고자 했던 여성들, 여성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배움’을 위해 담장 바깥으로 나갔던 여성들, 그리고 사회가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고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여성들. 그러나 교회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은 잊히기 쉬웠고, 늘 외로웠고, 여성들끼리의 갈등과 시샘으로 그 지도력이 폄하되기 일쑤였습니다.

### 2.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은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흔히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실천하는 신앙유형으로,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유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때에 따라 마리아가 강조되기도 하고 마르다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만, 개신교 전통에서는 대부분,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마리아의 신앙을 강조하고 좋은 것,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를 분리하고 우열을 나누어 한쪽만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온 관행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그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르다가 넘어섰던 금지된 벽을, 또한 마리아가 넘어섰던 금지된 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에게 금지됐던 벽, 그것이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나 율법이든, 혹은 여성 스스로가 내면의 상처로 인해 가지게 된 벽이든, 벽을 넘어서는 것은 ‘초월’, 곧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 3. 마르다의 초월(超越)

본문에 있는 일이 일어난 곳은 “마르다의 집”입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은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형제가 있음에도 이 집의 여주인,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 들이고’ 대접하는 주체는 마르다입니다. (4면에 계속)

예수님 시대 유대에서 여성은 한 집을 대표하는 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가족의 대표, 곧 호주가 되던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2천 년 전에 이 벽을 넘어선 이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께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1-2세기 랍비들은 자기 가족이 아닌 여성에게 말 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먼저 선생이신 예수께 말을 걸다니요! 더구나 마르다가 “자기 일(work)”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어 ‘디아코니아’(diakonia)는 복종적인 봉사가 아니라 권위적인 사역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 : 25에서는 맛디아를 제비 뽑아 “유다가 버리고 간 이 섬기는 일(ministry, diakonia)과 사도직” 맡깁니다. 남성들에게 부여되던 역할을 마르다가 맡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주체적인 말 걸기와 사역에서 마르다의 ‘주체적인 지도력’, ‘공적인 섬김의 지도력’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동생 나사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예수를 급히 청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 예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죽음과 부활, 영생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요 11 : 27)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대담한 메시아 선언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한 베드로의 선언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선언으로 흔히 말하는 ‘열쇠’, 곧 교황 수위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르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요 지도자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마리아의 초월(超越)**

2세기 유대 랍비들은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방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대 남성들은 만 열두 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토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은 만 열두 살이 되어 생리를 시작할 나이가 되면 약혼하고, 약 1년 후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배워야 할 것, 여성이 배워야 할 것이 달랐고, 여성의 영역과 남성의 영역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목말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앉기를 선택합니다. 여성에게 허용된 영역을 넘어,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5. 1세기 유대 여성들의 초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월은, 그들이 특별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여성들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금지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 자료, 비문들, 파피루스, 고고학 자료 등을 통해, 유대 여성 중에도 회당의 지도자, 재정적으로 독립된 지주, 사업가, 그리고 종교교육을 익히고 토라 연구에 헌신한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한 여성들이, 1세기, 마르다와 마리아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인사한 교회 지도자의 1/3은 여성입니다. 때로는 일꾼(diakonos)이나 집사/목사(deacon)로, 보호자나 동역자로, 사도 중 뛰어난 자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이로, 바울과 함께 간헐한 이로 불렸던 여성들은, 경계를 넘어 활약한 여성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2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금지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6. 우리의 초월**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은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2016년 선출직 의회대표에 “여성 50세 미만” 각 15% 할당이 ‘의무화’ 됐습니다. 1974년 여성교회전국연합회가 여성할당제(gender quota)를 발의한 후, 42년 만의 ‘의무화’입니다. 물론 발의 10년 만인 1984년 조건부 할당제가 도입됐지만, ‘가급적 30%’였던 조건부 할당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15%로 절반이 줄었음에도 할당제 의무화 이후 선출직 총회 여성 대표는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백래시’(backlash)는 여전합니다. 여성 할당 의무조항 앞에 어이없게도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50대 이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매번 나옵니다.

우리의 담 넘기, 초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공동체 구성원의 60%는 여성이기에, 건강한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되려만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여성들은 계속 울타리 넘어, 담장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7. 연대하는 여성들의 초월**

여성들의 담 넘기, 초월은, 서로의 손을 맞잡는 연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의 초월은 반짝이는 별이지만, 큰 흐름을 바꿔내는 역사를 이루려면 ‘연대’가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잊히고 사라진 여성들, 늘 벽을 넘기 위해 맨땅에 헤딩하며 결연하게 살아야 했던 선배들을, 불러내고 기억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언니 마르다의 요청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시지 않고 “마리아 ‘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하셨습니다.

담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은 서로를 복돋고 지지하고 서로를 채워가야 합니다. 담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완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의 단점을 채워가야 합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때로 실패하더라도, 때로 또다시 벽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일으키며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며, 선배 교회 여성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8. 이웃을 향한 여성들의 연대**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는 벽, 우리를 가두는 담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 사회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 그것은 안전한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삶의 질곡, 고통당하는 이웃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 또한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다는 믿음도 우리를 담장 안쪽에 안주하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에 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도왔다고, “나를 원수 취급하던 이가 처한 어려움에도 흔쾌히 나서는데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때로 버려진 유대인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들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 따스한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금지와 차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교회와 세계를 살려온 여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 지금 교회여성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벽은 어떤 것이며, 어떤 초월(담 넘기)이 필요할까요?
- 재일교회여성의 다양성은 무엇이며, 교회 여성들의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